

예언자 무함마드

(그분께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예언자 무함마드
(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무함마드는 누구인가?

서기 571년,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 혈통의 고귀한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찬양 받는 이" 라는 뜻인 "무함마드"였다. 그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고, 그래서 고아의 어려움과 특별한 상황을 잘 이해했다. 무함마드(그분께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눈에 띄는 성격을 가진 젊은이로 자랐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지의 시대에 아랍 사회에 있었던 술, 간음, 도둑질과 같은 죄 많은 생활로부터 그를 지키셨다. 그는 '알-아민', 즉,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귀중품 등을 맡기곤 했다. 이슬람 이전에도, 예언자 무함마드는 그 시대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외국인 상인들에 대항한 부정을 막는 것과 같은 사회 미덕의 확립을 추구하였다.

예언자 의무

그는 나이가 40세 되던 해, 음력으로 아홉째인 라마단 달에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를 받았다. 그에게 내려진 첫 번째 메시지는 "창조주이신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 읽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를 보내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신 삶의 방식인 이슬람은 그 시초부터 지식의 획득과 보급을 강조하였다.

그는 23년에 걸쳐 계시를 받았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에 의해 "꾸란"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으며, 모든 인류에게 내려온 계시이다. 꾸란의 기본 메시지는 창조주인 알라(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성서들(구약, 신약과 꾸란)에 대한 믿음, 심판의 날(내세, 천국과 지옥)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إنه من سليمان وإنه

أبو بكر رضي الله عنه

عمر رضي الله عنه

عن علي رضي الله تعالى عنه
كان إذا وصف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لم يكن بالطويل الممغط ولا بالقصير المتردد كان ربعة
من القوم ولم يكن بالجعد القطط ولا بالمكلثم كان
جعدا رجلا ولم يكن بالمطهم ولا بالسبط وكان في الوجه
تدوير أبيض مشرب أدعج العينين أهدب الأشفار
جليل المشاش والكتد أجرد ذو مسربة شثن الكفين
والقدمين إذا مشى يتقلع كأنما يمشي في صبب
وإذا التفت التفت معا

عثمان رضي الله عنه

علي رضي الله عنه

وما أرسلناك إلا رحمة للعالمين

بين كتفيه خاتم النبوة وهو خاتم النبيين أجود الناس
صدرا وأصدقهم لهجة وألينهم عريكة وأكرمهم عشرة
من رآه بديهة هابه ومن خالطه معرفة أحبه يقول ناعته لم أر قبله
ولا بعده مث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اللهم صل وسلم على نبي الرحمة
وشفيع الأمة محمد وآله وصحبه أجمعين مشقه حسين غفر له



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창조물에게 내려진 정명의 믿음이다.

예언자로서 계시를 받은 첫 13년 동안 그는 사람들을 우상숭배를 단념하며 유일신을 믿는 것으로 초대하였다. 첫 신자는 무슬림들의 “어머니”로 존경 받는 그의 아내 카디자였다. 불행히도, 그가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카 사람들은 예언자를 그들의 우상 숭배의 삶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예언자가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할수록, 강한 자들의 분노를 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옹호자가 되었다.

그의 메시지를 중단하게 하기 위해, 뇌물 수수, 고문, 추방과 같은 모든 방법들이 쓰였다. 이런 학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추종자들 중에 아무도 이슬람을 저버리지 않았다. 서기 622년, 예언자 무함마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카 북쪽에 있는 도시인 메디나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대한 것이었고, 이슬람의 달력은 이 이주(히즈라)와 함께 시작된다. 메디나에서 무슬림들은 결속력 있는 사회로 발전하였다. 모든 종교, 부족, 인종들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귀의하였다.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은 예언자의 고상함과 뛰어난 성격에 감동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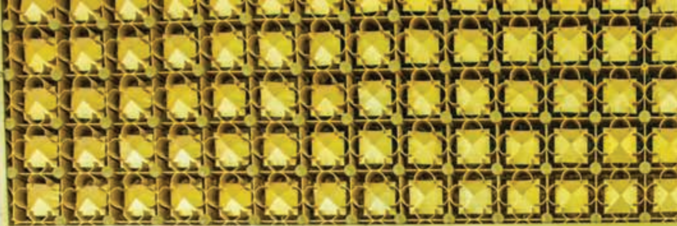
١٤٢٧  داود

히즈라 8년 후, 예언자 무함마드는 피를 흘리지 않고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격한 원칙 아래 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메카로 돌아갔다. 그는 낙타의 등에 타고 머리가 목에 붙을 정도로 머리를 숙이고 존경한 모습으로 메카로 입성하였다. 그는 도시로 들어가며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자 요셉이 그분의 형제들에게 했던 말을 하려 합니다. 오늘, 그 어떤 비난도 여러분께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그 다음 해 성지순례 때, 그는 사람들에게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길:

"우리는 이제 무지의 삶을 뒤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정의가 있어야 하며, 그 누구도 억압받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흑백, 빈부, 아랍과 비아랍인을 떠나 모두가 평등합니다. 서로를 구분 짓는 것은 신앙심뿐이며, 이교도의 관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 다음과 같은 꾸란 구절이 그에게 계시되었다. "…오늘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종교로 만족케 하였노라…" (마이다 장, 5/3)

예언자 무함마드는 632년에 서거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디나에 묻혔다.

도덕적 성격



그는 매우 겸손하였고 절대 불결한 말을 하지 않았으며, 외설스러운 것을 보았을 때는 그 자리를 뜨고 그 일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는 한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고, 나쁜 일을 당하였을 때는 또 다른 나쁜 행동으로 보복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관대하였고 용서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번도 그를 억압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다. 선택의 길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한, 항상 쉬운 길을 택하였다. 그는 요리와 청소를 돕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편히 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무엇이든 그가 가진 것에 관대하였고, 매우 균형 있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가 누군가와 앉았다면, 그 사람이 먼저 자리를 뜨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에게 고초를 겪게 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였다. 그는 매우 다정하였고, 전혀 거칠거나 탐욕스럽지 않았다. 또 그는 이유 없는 찬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의 개혁



예언자 무함마드(그분께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그의 사회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

- 그는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옹호하였다. 그는 남편이 아내에게 갖는 "주인의식"을 제거하였고 여성이 재산과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확립하였다. 또 그는 여성의 "결혼할 상대를 고르거나 거절할 권리"를 지켰다.
- 그는 고아들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고아들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확립하였으며 "가장 좋은 가정은 고아들이 잘 대우받는 가정이며, 가장 나쁜 가정은 고아들이 잘 못 대우받는 가정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고아들이 상속받은 유산이 오용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상속받은 유산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는 환경주의자였다. 예를 들어, 여행 중에 교우들을 모아 캠프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두 치우는 것은 그의 관례였다.
- 그는 동물의 등에 과다한 짐을 싣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는 모든 동물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을 설교하였다.
- 그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고, 심지어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나무를 심으라고 말하였다. 그는 전쟁 기간 동안에도 자연을, 특히 나무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그는 사회적 건강을 걱정하였으며 술, 독성 물질, 노예 제도, 도박의 사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연락처
터키 종교부
종교출판 총국
외국어 및 방언 간행부

Diyanet İşleri Başkanlığı
Dini Yayınlar Genel Müdürlüğü
Yabancı Dil ve Lehçelerde Yayınlar Daire Başkanlığı

Üniversiteler Mah. Dumlupınar Bulvarı
No:147/A 06800 Çankaya-ANKARA/TÜRKİYE
전화번호 : +90 312 295 72 81
팩스 : +90 312 284 72 88
이메일: yabancidiller@diyanet.gov.tr

Hz. MUHAMMED (s.a.s.)
KORECE